

학교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집중 신청

전북자치도교육청,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기간으로... 9세부터 18세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부터 25일까지 학교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주소 둔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업 중단 학생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이스 정보제공 연계·등록한 9~18세 청소년을 말한다. 신청은 인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야 된다. 군산·부안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혹은 인근 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 시에는 학습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학업 중단을 증명하는 서류(제적증명서, 정원의 관리증명서, 검정고시용 졸업증

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1종)을 구비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9~15세(초·중학교 단계)는 월 5만원, 16~18세(고등학교 단계)는 월 1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된다. 전북에듀케어카드(체크카드 형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전북에듀케어카드 온라인 신청은 15

일부터 가능하며,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일부터 카드발급을 할 수 있다. 9~11세는 보호자 명의로, 12세부터는 청소년 명의로 발급 받는다. 최초 신청 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신청기간에 전북에듀케어 앱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에듀케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북에듀케어 지원 콜센터(063-239-0845~7, 085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고하 최승범 선생 1주기 추모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최승범문학상 공모 수상작품집 '청춘' 발간... 32명 작품 담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과장 엄숙희)와 고하 최승범문학기념사업회(회장 양병호)는 제1회 고하 최승범문학상 공모전 수상작을 엮은 작품집 '청춘' (시간의물레)을 발간했다고 13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어국문학과와 고하 최승범문학기념사업회는 지난 1월 13일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이자 스스로 '전라도 문인'임을 자부한 고하 최승범 선생의 1주기를 추모하고, 그의 문학적 성취와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학생 대상 공모전을 실시했다. 특히 발간된 작품집에는 이번 공모전에서 장원, 차상, 차하를 수상한 예비 문학인들의 시 13편, 소설 9편, 수필 9편, 시나리오 1편 등의 32편이 담겼고,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수록됐다. '아름'을 시로 형상화하거나 구미호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설, '틱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청춘' 책 표지

시선 등을 다룬 수필 등 대학생들의 경험을 문학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정순희 교수는 서문을 통해 "여기 요령부득 청춘들이 모였다"며 "전북대학교 국문학과와 문학 흐름은 더 큰 강물로 모여 또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사회공헌실천인증 도입 인도주의 활동 기회 제공

전북대-적십자 전북 사회공헌 협약 체결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3일 현열의집 전북대한육센터에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이선홍 회장, 임영욱 사무처장,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정태현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공헌실천인증제 도입 및 운영을 통한 인도주의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 참여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 및 건전 기부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번 사회공헌협약 체결을 통해 도입 및 운영되는 사회공헌실천인증제는 사회봉사과목 이수, 물적나눔, 생명나눔 영역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회장과 전북대학교 총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https://forms.gle/tqBnNQ1PUAxt1Ako8>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학생들의 문해력 '쑥쑥' 국어중점학교 운영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 '문해력 중점' 군산 한들고 '독서 중점' 완주 봉동초·김제 지평선고 등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습하는 힘을 길러주는 국어중점학교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학교급의 특성과 학교 교육 과정의 다양성을 담아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북형 국어중점학교는 국어 교과가 중심이 돼 문해력 및 독서 중점형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학교다. 문해력 중점형은 군산 한들고등학교, 독서 중점형은 완주 봉동초등학교와 김제 지평선고등학교가 선도학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이들 학교에서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를 위해 문해력 진단 도구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 및 연구회도 운영된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생들의 학습하는 힘을 길러주는 국어중점 선도학교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문해력 진단 도구 활용을 기초로 설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북 학생들의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및 기관장 78명에 대한 위촉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교원 치유·회복 최선' | 자치도교육청, 교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기관장 등 78명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2층 강당에서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및 기관장 78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원치유 프로그램은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개인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공모를 통해 78명을 선정했다. 개인상담 전문가

17명, 전문상담기관장 36명, 맞춤형 프로그램 전문가 25명 등이다. 위촉 기간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이다. 교원치유 프로그램은 교원집해 또는 심리적 소진 교원이 언제든지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신청을 하면 개인상담 또는 진료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 치료, 모래놀이, 음악치료, 원예치료, 힐링캠프, 스포츠 치료, 타로, 독서치

료, 통합치료, 심리치료 등 10개의 프로그램 중 집단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5회기 동안 진행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대형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71곳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교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바이오헬스산업 이끌 휴먼테크형 인재 배출

우석대, 총 36명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이끌 휴먼테크형 인재 36명을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인체에 사용되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헬스케어, 서비스업까지 포함된 미래 핵심 산업으로, 2023년 세계시장규모는 1조 3,830억 달러에 이른다. 이날 우석대에 따르면 포스트 휴먼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바이오헬스로 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를

실시해 수행해 왔다. 또한 차세대바이오헬스산업혁신인재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약학과와 제약학과 등 의·생명 계열학과 재학생 18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운데 차세대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바이오헬스 융합트랙 운영과,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무실습 강화, 지·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집중해 왔다. 이 외에도 지난해 9월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약학대학에 직무 연수단을 파견, 바이오헬스분야의 최신 연구시설 탐방과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또 제8회 FIP 세계약학·제

약학술대회와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워크숍에서 GMP 업데이트 사항과 사례, 로봇공학 및 자동화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토론회도 참여했다. 이미경 차세대바이오헬스산업혁신인재양성사업단장은 "제품 생산까지 연구개발이 장기적 소요되는 바이오헬스산업은 성공 시 즉각적으로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실무형 혁신인재 양성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바이오산업 선도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직원수련원, 27일부터 퇴직예정자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오는 27일부터 총 16회에 걸쳐 퇴직예정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대상자를 퇴직예정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퇴직예정자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 8회씩 운영된다. 상반기 신청은 13~22일까지 전북교육연수포털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최원창 원장은 "교직원수련원에서 은퇴를 앞둔 퇴직예정 교직원들이 힐링의 시간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2024학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12월 20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아침 8시부터 120명에게 제공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난 12일부터 2024학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실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쌀 또는 쌀 가공식품)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학생 부담액 이외에 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 지원 금액이 지난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액된 가운데 1식 단가도 4,500원에서 5,500원



로 올라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해 올해 2년 차를 맞은 원광대는 올해 20명이 늘어난 120명에게 아침을 제공하며, 첫날부터 120명분의 식사가 모두 소진돼 학생들의 높은 호응도를

확인했다. 12일 첫 메뉴는 김치부침밥과 계란국, 돈가스, 소시지부침, 김치가 준비됐으며, 특히 학교 소재지인 익산에서 생산한 쌀을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 박성태 총장은 "더 많은 학생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인원 및 운영 일수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천원의 아침밥은 방학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학생식당에서 선착순 120명에게 제공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유아교육진흥원,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

내부청렴도 향상 위해 청렴서약 직원 개인별 책상에 비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지난 12~13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실천 자정 결의문 낭독, 청렴 서약식, 청렴 교육 등을 통해 청렴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자정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

부당 요구나 지시 금지 △특혜 제공 금지 △갑질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원장과 교육운영과장, 총무과장 등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청렴서약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개인별 책상에 비치하도록 했다. 강혜정 원장은 "청렴도를 높이고, 맑고 깨끗한 청정 유아교육진흥원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면서 "교육가족 및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정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